

기고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안전속도5030, 보행자 환경 살피는 계기로 삼자

요즘 주요 도심의 제한속도 표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운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산업화 시대 차량 소통 우선 교통문화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이 시행 초반에 접어 들었다.

속도는 시속 50km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30km 이내 속도 하향을 법률로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것으로 이전 우리 일상속에서 새로운 운전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통사고가 13%나 줄어들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에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시속 5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제동거리는 약 27m이지만 시속 60km에서는 제동거리가 36m로 조사된바 있다고 한다.

불편하기는 했지만 출퇴근시간이 늦어지거나 연료비가 많이 소모된다고 하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까지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장 봄철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주의

봄철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해당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화재 발생 시 불꽃이나 불티가 가연물에 조금만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1m까지 불티가 흩날리기도 합니다. 이 불티가 인화성 유증기와 접촉하는 순간 화재가 아닌 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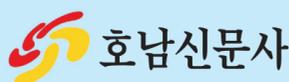
공사장의 특성상 위험물의 이동이나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불티가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불티 비산 방지 덮개와 불꽃받이를 용접·용단기 주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꼭 살피자

이른 아침 출근 길, 횡단보도 신호 녹색 점등이 켜지고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횡단보도 내 설치된 안내음성 소리에 따라 좌우를 살피고 보행하려던 차나 급속도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할 뻔한 경험이다.

중,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의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에 가입했다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보다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fire, police, and emergency.

Advertisement for Honam Newspaper subscription and membership,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benefits.